

News

“가계대출 증가세 잡아라”...은행권, 대출 중단에 한도 축소 조치

헤럴드경제

<https://zrr.kr/4XW9>

주요 은행들이 속속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음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함

상생금융 지원, 청년·고령층까지 늘린다

한국경제

<https://zrr.kr/8fYx>

은행권이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서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2조원 규모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서는 금리 감면액 2조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

ELS 점유율 경쟁 왜?...파생 총량규제가 '독' 됐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iTp5>

DLF사태 대책으로 2020년부터 총량제 시행

국민은행 한도 13조원으로 우리은행 4조 대비 3배 많아

'1000억 잔액 주담대' 쟁탈전 눈앞...‘원스톱 대환’ 준비하는 은행들

이데일리

<https://zrr.kr/bHsi>

정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연내 주담대로 확대

인행에 주담대 밀린 시중은행도 연말연초 대비해 준비중

'원금손실 주의보' 변액보험...고심 중인 보험사, 떨고 있는 소비자

데일리한국

<https://zrr.kr/kTXu>

불완전판매 증가에 당국 관리감독 강화

IFRS17에 유리하지만 민원 증가로 고민

발달지연 과잉 진료 우려...실손보험금 청구 2.3배 급증

한국경제

<https://zrr.kr/gzxN>

발달지연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비전문과 의사의 진료가 30%를 넘어 무분별한 진료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진격의 개미’ 다시 2차전지 베팅...빚투 5000억 급증

서울경제

<https://zrr.kr/isGZ>

보름여 만에 5000억 원 넘게 불어난 ‘빚투(빚 내서 투자)’ 자금이 2차전지로 향하고 있음

개인투자자들이 2차전지 종목의 재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

법에 발목잡힌 중간배당기업...“先배당 後투자, 우린 못해요”

한국경제

<https://zrr.kr/5uj5>

상법 개정으로 개선 길 열렸지만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 적용

결산기준일 바꿀 법적 근거 없어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